

# '훈훈' '달달'... 남북 브로맨스·로맨스



영화 '백두산' 시시간담회에서 배우 이정우(왼쪽)가 이병헌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제작발표회에서 대화하는 배우 현빈(왼쪽)과 손예진. /연합뉴스

“영화촬영 중에 북한 선제 타격이니 어찌 난리가 났다. 그러다 촬영을 마쳤을 때는 남북 정상이 다리에서 만나고, 우리 영화와 비슷한 장면이 구현돼 놀랐다.”

2018년 여름 개봉한 영화 '공작'을 연출한 윤종빈 감독 말이다. '공작'은 북한에 잠입한 실존 안기부 첩보원과 북한 고위 간부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때마침 남북 관계가 급속히 해빙 무드에 접어들었을 때 공개돼 큰 화제를 모았다. 마치 예언이라도 한 듯 현실과 비슷한 장면이 극 중에 등장해서다. 그러나 윤 감독은 개봉 때까지 주변 정세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가슴을 졸여야 했다.

◇ '현실 왜곡' vs '드라마일 뿐' 북한 관련 소재는 한국 영화·드라마 단골 소재다. 극적인 갈등을 담아낼 수 있고 액션, 로맨스 등 다양한 장르로 변주가 가능하며 남녀 간 사랑은 물론 민족애, 휴머니즘 등 여러 가치를 담아낼 수 있어서다.

하지만 위험부담도 크다. 실제 남북 관계가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하거나, 영화 내용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때가 많다. 통상 영화 기획부터 개봉까지 최소 3년, 길게는 7년 이상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모험인 셈이다.

패러클라이딩 사고로 북한에 불시착한 한국 재벌 상속녀 윤세리(손예진)와 북

## 영화·드라마 북한 소재 액션·로맨스 등 다양한 장르 변주

### 반목·대립보다 정치와 분리해 사람 사는 이야기 다뤄

객 시선이 매우 복잡하기에 콘텐츠를 만들 때는 현실과 상상력의 경계를 어디까지 할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작품이 공개될 당시 정치 사회적 분위기와 남북관계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 영화 '백두산'과 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을 둘러싼 논란도 이 연장선에서 해석될 수 있다. 북한이 연일 위협 수위를 높이는 시점에 훈훈한 남북 브로맨스와 달콤한 로맨스를 그리다 보니 현실과 괴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

700만명을 넘긴 '백두산'은 2014년부터 기획해 상업적으로 가장 무난한 이야기를 택했음에도 논란을 비껴가지 못했다. 브로맨스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백두산 화산 폭발을 막는 과정에서 북한 요원 리준평(이병헌 분)의 활약이 남한 요원 조인창(하정우)보다 훨씬 더 돋보이는 탓에 북한군을 미화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패러클라이딩 사고로 북한에 불시착한 한국 재벌 상속녀 윤세리(손예진)와 북

## 한 엘리트 장교 리정혁(현빈)의 로맨스

를 그린 '사랑의 불시착'은 시청률 6%대로 시작해 10% 돌파를 앞뒀다. SNS와 인터넷에선 드라마 속 북한말인 '후라이까지 마라' (거짓말 마라), '삼팜(삼페인), '가락지뺑(도넛), '살결물(스킨로션), '밭가마(밭습), '살까는 중(살 빼는 중), '귀때기(도청하는 사람) 같은 단어들도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10대, 20대를 중심으로 "북한말이 생소하면서 재밌다, 기발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여성 시청자들은 현빈, 손예진이 연기하는 로맨스에 열광한다. 지난달 30일 방영된 6회 시청률은 평균 9.2%였지만, 40대 여성 시청률은 순간 최고 13.4%를 기록했다.

드라마가 북한을 무작정 미화한 것은 아니다. 일상화한 도청, 잦은 정전 등 북한 현실을 일정 부분 반영했다. 탈북민 한승이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드라마 설정이 북한에 살던 때와 흡사한 부분이 많다. 전화 도청이나 유일한 간식거리가 누룽지인 점 등 디테일을 잘 살린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드라마 관계자는 "오래전 기획된 작품으로, 남북관계보다는 로맨틱 코미디를 위주로 봐달라"고 당부했다.

### ◇ 그래도 북한은 '매력적'

여러 논란에도 북한 소재는 여전히 창작자들에게 매력적인 소재다. 올해만 해도 '강철비' 양우석 감독 신작 '정상회담'을 비롯해 여러 편이 개봉 준비 중이다. 정우성·곽도원 주연 '정상회담'은 남북미 정상회담 중 북한의 쿠데타로 남북한 지도자와 미국 대통령이 핵잠수함에 납치·감금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다.

모로코에서 촬영 중인 류승완 감독 신작 '모가다슈'는 1990년대 소말리아 내전에 고립된 남북대사관 공무원들의 목숨을 건 탈출 사건을 모티프로 했다.

배급사 관계자는 "북한 소재라도 반목, 대립보다는 결국 사람 이야기를 다룬다"며 "개봉 시기에 정치적 변동 소지는 있지만, 이는 다른 영화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정치외 평론가는 "이제는 관객도 영화를 정치와 분리해서 생각하고, 작품 자체가 가진 힘이나 상업성에 더 집중하는 것 같다"면서 "다만 남북을 다룬 영화들은 그 특수성으로 인해 보다 섬세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음원 사재기 의혹 '그것이 알고 싶다' 화제

### 포털 실시간 검색어 장악

음원 사재기 의혹을 다룬 SBS TV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송 다음 날까지도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5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 10분 방송한 '그것이 알고 싶다-조작된 세계 음원 사재기인가? 바이럴 마케팅인가?' 편 시청률은 5.5%를 기록했다.

시청률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화제성만큼은 '울킵'이었다. 이날 오전 11시까지도 프로그램 이름과 음원 사재기 의혹을 받은 가수들이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하면서 화제성을 이어가고 있다.

전날 방송에서는 가수 닐로의 음원 사재기 의혹에 대해 연예계 관계자들이 입을 열었다. 익명의 관계자들은 갑자기 특정 음원 순위가 별 계기도 없이 크게 오른 사례와 음원 차트에서는 인기가 많지만, 막상 콘서트를 열려고 하면 행사장이 텅빈 바는 경우 등을 지적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최근 가수 박경이 제기한 사재기 의혹에 대해서도 다뤘다. 그러나 박경이 언급한 바이브, 송하예, 임재현, 전상근, 장덕철, 황인욱 등 가수들 측은 여전히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 중이다.

하지만 술탄 오브 더 디스코, 타이거

JK, 말보 등 가수들은 음원 사재기 제안을 받은 일화를 털어놓으며 관련 브로커들이 실제로 존재함을 증명했다. 그리고 실제로 연예기획사와 홍보대행업체를 연결해주는 브로커가 인터뷰에 나서 "한마디로 페이스북 픽은 그냥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라고 포장을 하는 방법"이라고 사재기 방식에 대해 설명했다.

전방위적인 제작진 취재와 연예계 관계자들 증언에 누리꾼들은 "한국 대중음악의 망신"이라며 분개하고 있다. 특히 가수 아이유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분을 캡처한 사진을 올리고 "그래도 하지 맙시다 제발"이라고 써서 팬들의 공감을 얻었다.

한편 방송 후 의혹의 대상이 된 가수들이 잇따라 반발하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남성 듀오 바이브 등이 소속된 메이저사인인 '저희에 대한 각종 의혹을 해명할 내용이나 방송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을 전면으로 뒤집을 수 있는 자료 등은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며 "6시간이 넘는 인터뷰 내용 중 단 3장면(만 방영됐고)"며 불만을 드러냈다.

플래티스엔터테인먼트도 방송 과정에서 소속 그룹명에 사재기와 관련된 것처럼 노출되자 "음원 사재기와 관련된 어떠한 불법·부정행위도 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밝힌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연합뉴스

## '미스터트롯' 시청률 첫 방송부터 12.5%

'미스터트롯' 신드롬 뒤를 이을 TV조선 새 프로그램 예능 '미스터트롯'에 첫방송부터 12.5%라는 높은 시청률을 보이며 목요일 밤을 달궜다. 3일 시청률 조사 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밤 9시 57분부터 다음 날 0시 38분까지 방송한 '미스터트롯' 시청률은 12.524%(이하 비지상과 유료가구)를 기록했다. 수도권 기준 순간 최고는 14.2%까지 치솟았으며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도 전날부터 현

재까지 장악 중이다.

시즌2 격인 남자판 '미스터트롯'은 송가인을 배출해낸 '미스터트롯'보다 훨씬 커진 무대와 과거 예능 '스타킹'을 보는 듯한 수많은 볼거리를 내세워 시청자 눈을 사로잡았다. 특히 전날 방송에서는 유소년부 참가자들이 눈길을 끌었다. 진성의 '보릿고개'를 열창한 정동원과 최연소참가자 홍잔언, 청아한 고음을 선보인 11살 임도형 등이 화제가 됐다. /연합뉴스

## TV프로그램 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나쁜사람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5 맛 좀 보실래요
9	30 KBS 뉴스	00 꽃길만 걸어요(재) 40 무한리필 샐러드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공부가 머니? 스페셜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특집 살맛 나는 오늘
11	00 청소년 공감 콘서트 온드림스쿨	00 살림하는 남자들(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5 제보자들(재)	00 12 MBC 뉴스 20 전국시대(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전국 TOP 10 가요쇼(재)
1	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케치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1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킴즈 동물교실 2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연중기획 -빛고을행복아카데미			00 뉴스브리핑
3	10 전라도 매력청(재)	00 KBS 뉴스타임 10 차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호기심대장 카토 50 뽀뽀 모모야 놀자	
4	00 사사건건	00 무한리필 샐러드(재)	20 나쁜사람(재)	00 신년특집 정재영의 이수N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영화가 좋다(재)	00 5 MBC 뉴스 25 생생 월드인뷰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재)
7	00 KBS 뉴스 7 40 우리말 겨루기	50 우아한 모녀	30 MBC 뉴스데스크	00 법률 365 05 시사터치! 따따부따(재)
8	30 꽃길만 걸어요	30 글로벌24 55 옥탑방의 문제아들	55 창사특집 다큐멘터리 휴머니얼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 9		50 마이 리틀 텔레비전 V2	40 낭만닥터 김사부 2
10	00 가요무대	10 개는 훌륭하다		
11	00 더 라이브 40 저널리즘 토크쇼 J(재)	40 코미디의 전당 <신화>(재)	10 언니네 생방송	0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2	35 KBS 뉴스 45 생활의 발견	45 스포츠 하이라이트	40 UHD 특선 다큐 라이브 오브 코알라	20 나이트 라인 50 앙코르 고향견문록 스페셜

## EBS1

07:00 로보가 폴리	13:55 별일 없이 산다	18:30 최고대 호기심떡지
07:30 뽀뽀뽀 뽀로로	14:45 물랑	19:00 스파이더맨
08:00 똥동맹 유치원	14:55 꼬마버스 타요(재)	19:30 생방송 판다다
08:30 애코와 친구들	15:10 로보가 폴리(재)	20:00 머털도사
08:45 최고대! 호기심떡지	15:25 제로니모 스틸핀의 모험	20:30 아웅망명 귀여워2(재)
09:00 엄마 까투리	15:55 엄마 까투리(재)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9:30 원더볼즈	16:10 최고대! 호기심떡지(재)	<발걸음마다 새로운, 유카탄반도 -마야의 심장에 가다>
10:00 지식의 기쁨	16:25 페파 피그(재)	21:30 한국가행
10:30 한국가행(재)	16:40 똥동맹 친구들-장난감나라의 비밀	<맛나다, 겨울 주전부리 1부 함께 모여 산골 별미>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00 EBS 뉴스	21:50 EBS 다크프라이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20 그림을 그려요	22:45 다문화 고부 열전
12:00 EBS 정오뉴스	17:30 애코와 친구들(재)	23:35 별일 없이 산다
12:10 다문화 고부 열전	17:45 마사와 곰(재)	
13:00 EBS 다크프라이	18:00 꾸러기 천사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6일(음 12월 12일 戊申) ☎ 010-9790-8237

36년생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48년생 본격적인 서막을 알리면서 활기차게 변신하는 운로이다. 60년생 김성이 왕성해지고 있으니 필히 이루어라. 72년생 복된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 한다. 84년생 중함을 감안해야 무리가 없다. 96년생 봉당을 빌려 주니 안방까지 달라는 이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75, 41

37년생 청전에 기뻐하지 말고 빠른 충고에 귀 기울여라. 49년생 앞뒤 가리지 말고 목표를 향해 전진해야 한다. 61년생 상대의 말에 숨은 뜻까지 잘 파악해야만 하느니라. 73년생 추진하되 무리해서는 아니 된다. 85년생 진로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생길 것이다. 97년생 어지간해서는 이루어가 어려우니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 행운의 숫자 : 67, 76

38년생 한없는 고마움을 느낄 것이다. 50년생 기대에는 못 미치더라도 관참은 편이다. 62년생 주변의 평에 신경 쓰지 않고 소신껏 행한다면 효과는 클 것이다. 74년생 수호 비호 영향력에 비중을 두는 것이 마땅하다. 86년생 예견치 못한 점들이 보인다. 98년생 굳이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행운의 숫자 : 36, 20

39년생 전체의 입장을 우선 하자. 51년생 하찮게 여겨 왔던 바가 행운과 연결 되는 형국이다. 63년생 절제 할 줄 알아야만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하리라. 75년생 허황된 것일랑 접어 버리고 실질적인 것에 주력하는 것이 무난하다. 87년생 과욕은 훗날의 아픔을 예고하는 진원지가 된다. 99년생 세차게 쏟아질 것이니 피하고 봐야한다. 행운의 숫자 : 19, 85

40년생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드러나게 되리라. 52년생 대동소이하니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판별할 수 있을 것이다. 64년생 상대의 기대 심리를 저버리지 마라. 76년생 가희, 팔복상대할 만하다. 88년생 절실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00년생 상당한 기간 동안에 공들여 왔던 것을 수확하는 때가 되었으리라. 행운의 숫자 : 64, 09

41년생 길방으로 가닥이 잡혔으니 사소한 것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53년생 바쁜 일상 속 귀중한 것을 놓칠 수 있다. 65년생 가닥이 잡히면서 운력이 드러날 것이다. 77년생 조금만 더 가면 목표에 도달하게 될 것이나, 89년생 승고르기를 하면서 속고해 본다면 선택의 여지는 있을 것이다. 01년생 하찮게 여겨 왔던 바의 역량이 크다. 행운의 숫자 : 88, 81

42년생 귀중한 협력자를 만나게 되리라. 54년생 대책 마련에 부심하게 된다. 66년생 개개인의 미진한 힘이라 할지라도 합쳐진다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니 협업하라. 78년생 정세 파악에 능해야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90년생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법이다. 02년생 앞먼서도 행하는 우를 범하지 마라. 행운의 숫자 : 82, 22

31년생 앞뒤 가리지 말고 강하게 밀어 붙여야 할 때이다. 43년생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무리가 없다. 55년생 계기가 마련되었을 때 기회로 삼는 것이 유리하다. 67년생 좋은 마무리는 큰 이익을 불러올 수도 있다. 79년생 정밀하고 신속하게 임하는 것이 맞다. 91년생 자발적으로 응하는 것이 유리하다. 행운의 숫자 : 16, 15

32년생 발상은 참신하나 진행 속도는 점진적이어야 한다. 44년생 기본적인 이치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56년생 아무런 문제 없이 실행하는 것이 지혜롭다. 68년생 치열한 노력 이 수반 되어야만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80년생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차이가 있다. 92년생 번거를 더라도 해 놓으면 실리가 따를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2, 21

33년생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으니 주의하라. 45년생 불변하던 반드시 뜰이 고쳐야 한다. 57년생 완벽을 추구하려는 것은 과욕일 뿐이니라. 69년생 알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다 알게 되느니라. 81년생 조처 하지마자 절실히 후회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93년생 기다려야 할 때이다. 행운의 숫자 : 35, 32

34년생 주어진 국량에 적절해야만 제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46년생 주변의 평에 귀 기울여라. 58년생 피하려 하지 말고 정면으로 맞대응 하는 것이 최선이라 할 수 있다. 70년생 바빠서 시간을 쪼개어 쓰느라고 애를 먹었다. 82년생 피할 수 있는 여유는 충분하니 방도를 강구하라. 94년생 고생은 없지만 순탄치만은 않다. 행운의 숫자 : 83, 29

35년생 강력한 타격이 아니라면 판국 자체를 무시해도 하등의 장애가 없다. 47년생 흥왕의 기운이 새롭게 일어나고 있느니라. 59년생 멀리 내다보면서 관계 설정하라. 71년생 알찬 결실을 거두게 된다. 83년생 조정한다면 향상된 면모를 보일 수 있다. 95년생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목적이었던 바이다. 행운의 숫자 : 54, 02